

# SPL Cabulator

by 이선철

## 기타리스트의 고행

뮤지션 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기타리스트들은 자신의 톤에 너무나 예민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톤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투자하지요. 많은 기타와 앰프, 이펙터들을 시험해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러 종류의 케이블들을 놓고 각각의 사운드 특성을 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톤은 그 기타리스트의 연주의 일부이며, 실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타리스트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그 '고행'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일렉트릭 기타사운드를 결정하는 요소는 수도 없이 많지만, 필자는 기타 앰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크랭크 업(볼륨을 높이는 것)된 진공관 기타앰프의 사운드는 그 어떤 이펙터로도 흉내낼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앰프 자체 내에서 생성되어 지는 디스토션은 크게 세 스테이지로 나뉘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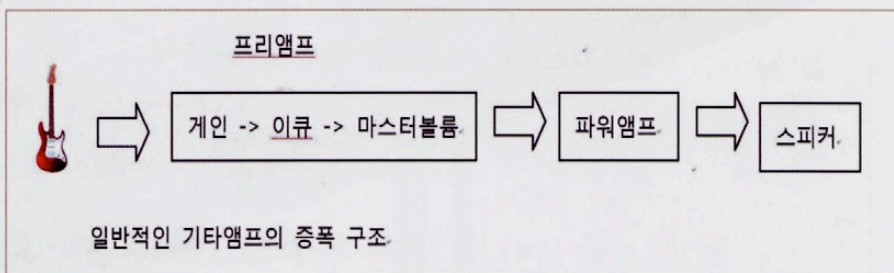
첫 번째는 프리앰프 디스토션. 이는 주로 앰프 자체 내의 오버드라이브 회로를 이용하거나 마스터 볼륨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워 앰프 디스토션. 이는 정말로 '크랭

크 업' 된 세팅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강하게 드라이브된 파워부 진공관을 통해 얻어지는 디스토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피커 디스토션이 있습니다. 이는 크랭크 업 된 앰프 소리가 스피커를 강하게 가동시킬 때 얻을 수 있는 사운드입니다. 보통 100에서 150와트 같은 하이 파워 스피커 보다는 Celestion에서 나온 25와트 규격의 Greenback 모델 같은 스피커에서 보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이 쉽게, 그리고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디스토션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프리앰프 디스토션입니다. 낮은 레벨에서 쉽게, 원하는 만큼의 디스토션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은 궁금해 합니다. "왜 내가 음반이나 라이브에서 듣던 그런 사운드가 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같은 기타, 같은 이펙터, 같은 앰프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를 통해 기타리스트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Profile

- \_ Berklee College of Music Film Scoring, Contemporary Writing & Production 복수전공 졸업
- \_ 경희대학교 음대 멀티미디어 학과 석사 졸업
- \_ 오페라 'Rain' 미디 오케스트레이션 in Broadway, NY
- \_ MBC 특집극 '피아노가 있는 풍경' 음악감독
- \_ 전 창신대 실용음악과 전임교수
- \_ 현 LSC Music Production (www.lscmusic.com) 대표 겸 음악감독
- \_ email : moviescoring@gmail.com



일반적인 기타앰프의 증폭 구조

# Transducer

## SPL Cabulator

SPL (Sound Performance Lab)은 기타리스트들에겐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SPL은 오랜 기간 동안 마이크 프리앰프, 채널스트립, 이퀄라이저의 하이엔드 스튜디오 레코딩 장비들을 생산해온 명망 있는 회사입니다. 이 SPL에서 이번에 기타리스트를 위한 캐비닛 시뮬레이터 두 종류를 발매하였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Cabulator와 Transducer가 그것입니다.



Cabulator

Cabulator는 파워 소크(Power Soak), 스피커 시뮬레이션, D.I.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Transducer는 아날로그 스피커, 마이크 시뮬레이터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충분히 고가의 장비들을 갖추고도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뽑아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앰프를 충분히 크랭크 업 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리앰프 디스토션은 컨트롤 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속이 빈 듯한 얇은, 쉽게 설명하지만 맥아리가 없는 사운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기타리스트들은 보다 힘 있는 사운드를 얻기 위해 디스토션 레벨을 더욱 올리게 되고, 결과는 점

점 악화될 뿐입니다. 기타앰프에서의 파워 앰프의 역할은 단지 프리앰프에서 다듬어진 소리를 볼륨만 올려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륨을 올려주는 과정에서 진공관 앰프 특유의 사운드가 가미가 되고, 이는 기타 사운드를 보다 힘 있고 알맹이 있는 사운드로 바꾸어놓게 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렇게 파워앰프를 충분히 드라이브 시킬 만큼 볼륨을 올리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마스터 볼륨을 줄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스터 볼륨은 프리앰프부에 속해있는 볼륨입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연이나 레코딩 시에도 원하는 만큼의 레벨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언제나 기타리스트는 볼륨을 올리길 원하고 엔지니어는 낮추기를 원합니다. 모니터 문제나 다른 마이크로 소리가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기타앰프의 볼륨은 높으면서 스피커 레벨은 낮게 만들면 된다는 모순되면서도 간단한 해결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SPL의 Cabulator가 해당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기의 역할을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타앰프 파워부의 마스터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Start setting

다른 기타 이펙터들 셋업과는 다르게 Cabulator 같은 Power Attenuator류의 기기 세팅엔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파워 앰프 아웃은 프리앰프나 기타 신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앰프의 출력 트랜스나 Cabulator 혹은 스피커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결은 앰프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절대 스피커 선을 쉴드가 되어있는 케이블(기타 케이블 등)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또한 4옴, 8옴, 16옴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임피던스를 제대로 맞추어 연결해야만 합니다.

Cabulator는 세 가지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스피커 시뮬레이션입니다. 스피커에 연결하지 않고 Cabulator의 D.I. Out을 콘솔에 바로 연결하거나 A.D. 컨버터에 연결하여 컴퓨터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기의 핵심인 Power Soak 기능입니다. 기타 앰프와 스피커 사이에 연결하여 낮은 볼륨으로 크랭크 업 된 앰프 사운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로 앰프 사운드를 뽑아내면서 D.I. Out으로 라인아웃 신호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 그만그만하게 느껴왔던 각종 이펙터 페달 들이 Cabulator 로 풀 업된 앰프에 연결되었을 땐 그동안 못 느꼈던 기기 각각의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Power Sock 노브를 제외한 Speaker Voicing 노브, Speaker와 Cabinet 스위치는 D.I. Out 으로 빠지는 소리에만 적용되는 컨트롤입니다. Speaker Voicing 노브는 단순히 톤 조절노브가 아닙니다. 실제 스피커를 울리지 않은 라인 아웃 신호로써 볼륨에 따른 스피커의 특성을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예를 들면 앰프 볼륨이 높아질수록 중음이 더욱 또렷해지고 컴프레션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 Speaker Voicing 노브는 그걸 정확히 표현 해줍니다. 즉 앰프의 볼륨 노브 같이 0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볼륨의 증가와 더불어 두터운 중음과 내추럴 컴프레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퀀서에서의 VST 기타 앰프 시뮬레이션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Cabulator의 D.I. Out은 단지 스피커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앰프의 모든 회로를 거쳐서 나온 소리에 Speaker Voicing 으로 스피커 사운드 보정을 더한 사운드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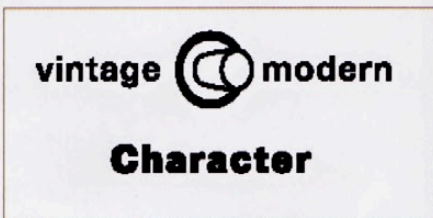
Speaker Voicing 노브

Cabinet 스위치는 Open과 Close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스피커 캐비닛 뒷면의 개방 형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Open은 Open Back Cabinet 을 말하는 것으로써 뒷면을 열어놓은 스피커 캐비닛입니다. 고음대가 강조된 사운드로서 탄탄한 저음역대를 표현해줍니다. Fender 의 Twin Reverb, Deluxe Reverb등의 사운드를 생각해보면 될



Cabinet 스위치

듯합니다. Close는 반대로 뒷면을 모두 막아놓은 캐비닛으로서, 풍부한 저음역대를 재생시켜줍니다. 보통 12인치 네방짜리 캐비닛들이나 베이스 앰프들이 이 Closed Back Cabinet을 사용합니다.



11. Character 스위치

Character 스위치는 MesaBoogie의 Dual Rectifier에 사용된 회로를 시뮬레이션 한듯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정류할 때 Diode를 사용하는 회로(Modern)와 진공관을 사용하는 회로(Vintage)의 사운드 차이를 선택하는 스위치입니다. Modern은 좀 더 저음부가 단단하며 고역대가 강조된 사운드이며, Vintage는 저음역대가 약간 풀어진 듯 강하게 반응하며 좀더 부드러운 사운드를 내어줍니다.

### 타사 제품과의 차이?

시중에는 많은 종류의 Power Attenuator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THD의 Power Plate, Marshall의 Power Brake, Kendrick Amplifier의 Power Glide, Dr. Z의 Air Brake 등등의 제품들이 나와 있고, 이 모든 제품을 다 사용해 본건 아니지만, 이번 SPL의 Cabulator는 확실히 Power Attenuator

제품의 스탠더드를 두어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제품임엔 분명합니다.

보통 D.I. Ou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베이스 앰프와는 다르게 기타에서의 D.I. Out은 있으나마나한 기능으로 치부되어 왔던 게 사실이나, Cabulator의 D.I. Out 기능은 기대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는 라이브나 공연시 기타 사운드 메이킹에 많은 옵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공관 앰프의 볼륨 세팅에 따른 사운드의 변화를 확실히 인식하게 만들어 주어, 어떤 볼륨 레벨 연주에서건 올바른 사운드 세팅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공연에서건 연주에서건 중요한 점인데, 볼륨 3에서의 앰프와 볼륨 8에서의 앰프는 사실상 다른 앰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볼륨 3에서의 세팅으로 볼륨 8에서 연주해선 안되며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진공관 앰프는 그만큼 예민한 장비인 것입니다. 또한 Cabulator의 사용으로 사운드 외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얼마나 좋은 장비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의 장비 지름병을 어느 정도 치유해줄 수 있다는 점이고, 또한 녹음이나 공연 시엔 엔지니어와의 마찰을 줄여서 오랜 기간 쌓여왔던 엔지니어와 뮤지션간의 해묵은 앙금을 해소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Cabulator를 사용함으로써 단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앰프의 파워부를 강하게 드라이브시킴으로써 파워부 진공관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 단점은 기꺼이 받아들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타 톤에 고민을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라면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 보아야 할 제품임에 분명합니다. 